

LED광원 전등 제조업체 (주)부여전자



대표이사 이병웅
02-2029-8400
www.bury.co.kr

다양한 LED 광원 전등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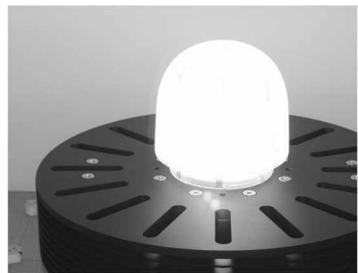
주식회사 부여전자는 1990년 2월 으뜸전자를 설립하여 전자부품의 유통으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분식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전자부품을 유통하면서도 부류의 개발 및 제조기술에 투자해야겠다는 소신을 잊지 않았고 특히 백색 LED의 응용분야는 물론 (주)부여전자의 비전이자 미래지향적 분야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돌이켜보면 18년의 세월동안 국내의 우수기업에 다양한 종류의 LED를 공급함으로써 업계의 높은 인지도와 고도의 기술영역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경영철학이 이제는 LED 조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에 몇몇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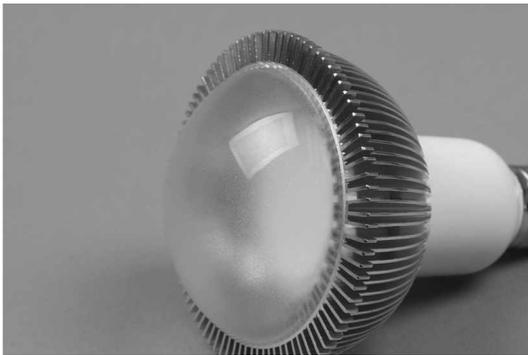
그러나, 자금력과 조직력이 튼튼히 갖추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과 부단히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는 R & D 부분의 기술력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술력이야 말로 현재 LED가 주 조명으로 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투자조건이자 저회와같은 중소기업으로서 가장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주)부여전자는 이미 다양한 LED 광원 전등을 개발 제품화하여 높은 완성도의 제품군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할로젠 램프 대체형으로 3W, 5W용 램프, 백열진구 대체용 3W, 4W, 5W, 7W 그리고 10W의 Cool & Warm White 램프, 매립용으로 6인치 10W, 15W, 20W 그리고 8인치 10W, 15W, 20W 와형광등 대체용 램프인 14W, 18W 와투광기 50W, 70W, 100W 등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총 36개 모델과 개발 중인 10개 모델이 완벽한 시험을 통과했고 KS 인증을 눈앞에 두고있다.



LED 조명용 Module에 방열기법을 도입

지금의 LED 조명은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LED가 갖는 광효율은 15%에 불과하여 85%가 열로 발산하게 된다. 발생된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시켜주지 않으면 수명이 30,000시간도 채 가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광속 유지율도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방열구조를 사용전력의 크기에 따라 탈착방식의 방열판을 개발하여 관련특허를 출원했으며 LED Module을 사내의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 및 설계기술을 보유함으로써 LED 조명용 Module에 방열기법을 도입하여 양산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High Power LED 모듈 및 Lens에 광확산제를 응용하여 음영 및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키는 기법 등을 적용하여 1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부여전자는 적은 조적으로도 많은 기술적 Know How를 축적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LED 조명에 대한 수명은 이론적일 뿐 실제 검증용 기체 제시된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조금함을 자제하고 시장의 출시가 늦더라도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보안등, 산업용 공장등, 병원의 의료용 조명등 및 주거용 실내등으로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주)부여전자의 Supporter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우릴 것이다.

한편, 근본적으로 LED가 광원으로써 제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국가의 제도적 기술적 요건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일변도 보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호할 수 있는 제

도적 뒤받침과 이미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인 우위없이 장비및 희망으로만 접근한다면 그 출현이 너무 큰 것이라는 우려도 현 정부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시장의 자율이 맡기기보다는 분야별 전문업체로 재편 또한 고려함직 하다. 즉, LED Chip의 양자효율 향상이나 반도체 신소재 개발 업체와 새로운 형광체 개발 그리고 광학적 디자인 및 기구개발 등의 분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통제한다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보다 확고히 선진할 수 있을 것이다.

빛의 Technology.

(주)부여전자는 2/4분기 까지 모든 제품에서 KS 인증을 획득하고 3/4분기 부터 전략적인 시장출시를 목표로 대규모 영업 사업단을 본격 가동하여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고대하고 있다.

브랜드 내인 - "더빛"

단 하나(the)의 빛; (주)부여전자만이 구현할 수 있는 빛의 Technology.

영문 "더(the)"와 한글 "빛(vitt)"이 어우러져 재치있고 감각적인 브랜드명이다.

국내에 물론 세계적인 제품으로 발돋움하게 될 (주)부여전자가 심혈을 기울인 LED 제품의 브랜드 "더빛"은 아름다운 한글로도 손색이 없고 국제적이고 새치있는 감각이 돋보이는 제품브랜드이다. 그린에너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동반자 (주)부여전자가 "더빛"과 함께 더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것이다.

| 기술표준 2009.6